

<삼성전자> 미국 특허획득 3년연속 TOP10

삼성전자는 특허 조사기관인 IFI 클레임스가 조사해 발표한 2000년 미국 특허획득 순위에서 1442개를 기록, 1999년에 이어 세계4위를 지켰다고 2001년1월12일 밝혔다.

미국 특허등록 순위(2000)

순위	회사명	국적	등록수
1	IBM	미국	2 922
2	NEC	일본	2 034
3	캐논	일본	1 897
4	삼성전자	한국	1 442
5	루슨트테크놀로지	미국	1 415
6	소니	일본	1 394
7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미국	1 306
8	도시바	일본	1 264
9	모토로라	미국	1 203
10	후지쓰	일본	1 169

자료) IFI

삼성전자는 1998년 1306개(6위)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1999년 1544개(4위)에 이어 3년 연속 톱10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IFI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50위권에 올랐고 소니(6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위), 도시바(8위), 모토로라(9위), HP(16위), 인텔(19위) 등 반도체와 정보통신, 디지털미디어 관련 경쟁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위에는 IBM, NEC, 캐논이 차례로 올랐다.

삼성전자가 2000년 얻은 미국특허는 「차세대 메모리」 「TFT-LCD」 「IMT-2000」 「MPE G4」 등 사업부문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1/2/5>